



기억하자?

내가 되겠다고 결정한 거니까, **그걸 위해** 싸우다 죽는다면 상관없어!

- 몽키. D. 루피, 원피스

평가원 기출 사자성어 총 집합 (6월, 9월, 수능)

1	가렴주구(苛斂誅求)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렴주구(苛가혹할 가, 斂거둘 렫, 誅벌 주, 求구할 구) :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 	2회
2	가인박명(佳人薄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인박명(佳아름다울 가, 人사람 인, 薄얇을 박, 命목숨 명) : 미인은 불행하거나 병약하여 요절하는 일이 많음. = 미인박명 	1회
3	각골지통(刻骨之痛)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골지통(刻새길 각, 骨뼈 골, 之갈 지, 痛아플 통) :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함. 또는 그런 일. 	2회
4	각골통한(刻骨痛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골통한(刻새길 각, 骨뼈 골, 痛아플 통, 恨한 한) :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움. 또는 그런 일. 	2회
5	감탄고토(甘呑苦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탄고토(甘달 감, 呑삼킬 탄, 苦쓸 고, 吐토할 토)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사리의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제 비위에 맞으면 좋아하고 안 맞으면 싫어한다는 말. 	1회
6	갑론을박(甲論乙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갑론을박(甲갑옷 갑, 論논할 론, 乙새 을, 駁박할 박) : 여러 사람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함. 	3회
7	개과천선(改過遷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과천선(改고칠 개, 過지날 과, 遷옮길 천, 善착할 선) :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고쳐 올바르게 착하게 됨. 	2회
8	견강부회(牽強附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강부회(牽이끌 견, 強강할 강, 附붙을 부, 會모일 회) :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 	2회
9	경거망동(輕舉妄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거망동(輕가벼울 경, 舉들 거, 妄망령될 망, 動움직일 동) :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함. 또는 그런 행동. 	1회
10	고립무원(孤立無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립무원(孤외로울 고, 立설 립, 無없을 무, 援도울 원) :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음. 	3회
11	고진감래(苦盡甘來)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진감래(苦쓸 고, 盡다할 진, 甘달 감, 來올 래) :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 	4회
12	과대망상(誇大妄想)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대망상(誇자랑할 과, 大큰 대, 妄망령될 망, 想생각 상) : 실보다 과장하여 터무니없는 헛된 생각을 하는 증상 	2회
13	괄목상대(刮目相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괄목상대(刮깎을 관, 目눈 목, 相서로 상, 對대답할 대) :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본다는 뜻으로,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는 것을 일컬음. 	1회
14	구우일모(九牛一毛)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우일모(九아홉 구, 牛소 우, 一한 일, 毛털더 모) : 아홉 마리의 소 가운데 박힌 하나의 털이란 뜻으로, 매우 많은 것 가운데 극히 적은 수를 이르는 말. 	2회
15	권불십년(權不十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불십년(權저울추 권, 不아닐 불, 十열 십, 年해 년) : 권세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 	1회



16	근묵자흑(近墨者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묵자흑(近가까울 근, 墨먹 먹, 者놈 자, 黑검을 흑) <p>: 먹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p>	1회
17	기고만장(氣高萬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고만장(氣기운 기, 高높을 고, 萬일만 만, 丈어른 장) <p>1 펄펄 펄 만큼 대단히 성이 남. 2 일이 뜻대로 잘될 때, 우쭐하여 뽐내는 기세가 대단함.</p>	2회
18	기사회생(起死回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회생(起일어날 기, 死죽을 사, 回돌아올 회, 生날 생) <p>: 거의 죽을 뻔하다가 도로 살아남.</p>	2회
19	기호지세(騎虎之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호지세(騎말탈 기, 虎범 호, 之갈 지, 勢형세 세) <p>: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p>	1회
20	내우외환(內憂外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우외환(內안 내, 憂근심할 우, 外밖 외, 患근심 환) <p>: 내우와 외환. 나라 안팎의 근심 걱정.</p>	1회
21	노심초사(勞心焦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심초사(勞일할 노, 心마음 심, 焦탈 초, 思생각 사) <p>: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p>	2회
22	능소능대(能小能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소능대(能능할 능, 小작을 소, 能능할 능, 大큰 대) <p>: 모든 일에 두루 능함.</p>	2회
23	다다익선(多多益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다익선(多많을 다, 多많을 다, 益더할 익, 善착할 선) <p>: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음. 중국 한(漢)나라의 장수 한신이 고조(高祖)와 장수의 역량에 대하여 얘기할 때, 고조는 10만 정도의 병사를 지휘할 수 있는 그릇이지만, 자신은 병사의 수가 많을수록 잘 지휘할 수 있다고 한 말에서 유래한다.</p>	1회
24	독야청청(獨也青青)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야청청(獨홀로 독, 也이끼 야, 푸를 청, 푸를 청) <p>: 남들이 모두 절개를 꺾는 상황 속에서도 홀로 절개를 굳세게 지키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p>	1회
25	동가홍상(同價紅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가홍상(同한가지 동, 價값 가, 紅붉을 홍, 裳치마 상) <p>: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뜻으로, 같은 값이면 좋은 물건을 가짐을 이르는 말.</p>	1회
26	동문서답(東問西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문서답(東동녘 동, 問물을 문, 西서녘 서, 答대답 답) <p>: 물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p>	1회
27	동병상련(同病相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병상련(同한가지 동, 病병 병, 相서로 상, 憐불쌍히 여길 련) <p>: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p>	5회
28	동분서주(東奔西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분서주(東동녘 동, 奔달릴 분, 西서녘 서, 走달릴 주) <p>: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뛴다는 뜻으로, 사방으로 이리저리 몹시 바쁘게 돌아다님을 이르는 말.</p>	1회
29	동상이몽(同床異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상이몽(同한가지 동, 床평상 상, 異다를 이, 夢꿈 몽) <p>: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는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판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p>	4회
30	두문불출(杜門不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문불출(杜막을 두, 門문 문, 不아닐 불, 出날 출) <p>1 집에만 있고 바깥출입을 아니함. 2 집에서 은거하면서 관직에 나가지 아니하거나 사회의 일을 하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p>	1회
31	마이동풍(馬耳東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동풍(馬말 마, 耳귀 이, 東동녘 동, 風바람 풍) <p>: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간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 버림을 이르는 말.</p>	2회



32	막무가내(莫無可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무가내(莫없을 막, 無없을 무, 可옳을 가, 奈어찌 내) : 도무지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어 어찌할 수 없음 	2회
33	만시지탄(晚時之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시지탄(晚늦을 만, 時때 시, 之갈 지, 歎탄식할 탄) :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1회
34	망양지탄(亡羊之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양지탄(亡망할 망, 羊양 양, 之갈 지, 嘆탄식할 탄) : 갈림길이 매우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을 길이 없음을 탄식한다는 뜻으로,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2회
35	맥수지탄(麥秀之嘆)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수지탄(麥보리 맥, 秀빼어날 수, 之갈 지, 嘆탄식할 탄) :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 기자(箕子)가 은(殷)나라가 망한 뒤에도 보리만은 잘 자라는 것을 보고 한탄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1회
36	면중복배(面從腹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중복배(面낫 면, 從좃을 중, 腹배 복, 背배반할 배) : 겉으로는 복중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 = 양봉음위 	2회
37	명재경각(命在頃刻)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재경각(命목숨 명, 在있을 재, 頃발뼉이 단위 경, 刻새길 각) : 금방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룸. 거의 죽게 됨. 	1회
38	목불인견(目不忍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불인견(目눈 목, 不아닐 불, 忍참을 인, 見볼 견) : 눈앞에 벌어진 상황 따위를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음 	1회
39	무위도식(無爲徒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위도식(無없을 무, 爲할 위, 徒무리 도, 食밥 식) : 하는 일 없이 놀고먹음. 	1회
40	물아일체(物我一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아일체(物만물 물, 我나 아, 一한 일, 體몸 체) : 외물(外物)과 자아(自我) 또는 객관과 주관이 하나가 됨. 또는 그런 경지. 	1회
41	반신반의(半信半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신반의(半반 반, 信믿을 신, 半반 반, 疑의심할 의) : 얼마쯤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함. 	2회
42	방약무인(傍若無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약무인(傍곁 방, 若같을 약, 無없을 무, 人사람 인) :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음. 	1회
43	부화뇌동(附和雷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화뇌동(附붙을 부, 和화할 화, 雷同래 뇌, 同한가지 동) : 좃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4회
44	비분강개(悲憤慷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분강개(悲슬플 비, 憤분할 분, 慷슬플 강, 慨슬퍼할 개) : 슬프고 분하여 의분이 북받침. 	2회
45	사고무친(四顧無親)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무친(四네 사, 顧돌아볼 고, 無없을 무, 親친할 친) :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 	2회
46	사면초가(四面楚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면초가(四네 사, 面낫 면, 楚초나라 초, 歌노래 가) :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 	1회
47	사필귀정(事必歸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필귀정(事일 사, 必반드시 필, 歸돌아갈 귀, 正바를 정) :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 	2회
48	삼고초려(三顧草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고초려(三셋 삼, 顧돌아볼 고, 草풀 초, 廬농막집 러) :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참을성 있게 노력함. 중국 삼국 시대에, 촉한의 유비가 난양(南陽)에 은거하고 있던 제갈량의 초옥으로 세 번이나 찾아갔다는 데서 유래한다. 	1회
49	삼십육계(三十六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십육계(三셋 삼, 十열 십, 六여섯 육, 計책 계) 1 물주가 맞힌 사람에게 살돈의 서른여섯 배를 주는 노름. 2 서른여섯 가지의 꾀. 많은 모계(謀計)를 이른다. 	1회



50	상전벽해(桑田碧海)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전벽해(桑뽕나무 상, 田밭 전, 碧푸를 벽, 海바다 해) :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회
51	새옹지마(塞翁之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옹지마(塞변방 새, 翁늙은이 옹, 之갈 지, 馬말 마) : 인생의吉凶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 옛날에 새옹이 기르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서 노인이 낙심하였는데, 그 후에 달아났던 말이 준마를 한 필 끌고 와서 그 덕분에 훌륭한 말을 얻게 되었으나 아들이 그 준마를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으므로 노인이 다시 낙심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아들이 전쟁에 끌려 나가지 아니하고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3회
52	선견지명(先見之明)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견지명(先먼저 선, 見볼 견, 之갈 지, 明밝을 명) :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아는 지혜. 	1회
53	설상가상(雪上加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상가상(雪눈 설, 上윗 상, 加더할 가, 霜서리 상) :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 얹친 데 겹친 격 	2회
54	설왕설래(說往說來)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왕설래(說말씀 설, 往갈 왕, 說말씀 설, 來올 래) : 서로 변론을 주고받으며 옥신각신함. 또는 말이 오고 감. 	1회
55	수구초심(首丘初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구초심(首머리 수, 丘언덕 구, 初처음 초, 心마음 심) :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로 향한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일컫는 말. 	1회
56	수수방관(袖手傍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수방관(袖소매 수, 手손 수, 傍곁 방, 觀볼 관) :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다는 뜻으로, 간섭하거나 거들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둠을 이르는 말. 	1회
57	수주대토(守株待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주대토(守지킬 수, 株그루 주, 待기다릴 대, 兎토끼 토) : 한 가지 일에만 얽매어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송나라의 한 농부가 우연히 나무 그루터기에 토끼가 부딪쳐 죽은 것을 잡은 후, 또 그와 같이 토끼를 잡을까 하여 일도 하지 않고 그루터기만 지키고 있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1회
58	순망치한(唇亡齒寒)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망치한(唇입술 순, 亡망할 망, 齒이 치, 寒쌀 한) :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1회
59	시시비비(是是非非)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시비비(是을 시, 是옳을 시, 非아닐 비, 非아닐 비) : 1 여러 가지의 잘잘못. 2 옳고 그름을 따지며 다툼. 	1회
60	식자우환(識字憂患)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자우환(識알 식, 字글자 자, 憂근심 우, 患근심 환) : 학식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근심을 사게 됨. 	1회
61	안하무인(眼下無人)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하무인(眼눈 안, 下아래 하, 無없을 무, 人사람 인) :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 비슷한 말 : 안중무인(眼中無人). 	3회
62	암중모색(暗中摸索)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암중모색(暗어두울 암, 中가운데 중, 摸터듬을 막, 索찾을 색) 1 물건 따위를 어둠 속에서 더듬어 찾음. 2 어림으로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아내려 함. 비슷한 말. 3 은밀한 가운데 일의 실마리나 해결책을 찾아내려 함. 	2회
63	양자택일(兩者擇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자택일(兩두 양, 者놈 자, 擇가릴 택, 一한 일) : 둘 중에서 하나를 고름. 	2회



64	연목구어(緣木求魚)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목구어(緣인연 연, 나무 목, 구구할 구, 물고기 어) :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회
65	오리무중(五里霧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리무중(五다섯 오, 리마을 리, 안개 무, 중간에 중) : 오 리나 되는 길은 안개 속에 있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 	3회
66	오불관연(吾不關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불관연(吾나 오, 아닐 불, 관계할 관, 어찌 연) : 나는 그 일에 상관하지 아니함. = 수수방관, 마이동풍 	1회
67	오월동주(吳越同舟)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월동주(吳성씨 오, 越넘을 월, 同한가지 동, 舟배 주) :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서로 적대 관계인 오나라의 왕 부차(夫差)와 월나라의 왕 구천(句踐)이 같은 배를 탔으나 풍랑을 만나서 서로 단합하여야 했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2회
68	온고지신(溫故知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고지신(溫따뜻할 온, 故연고 고, 知알 지, 新새 신) :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 	2회
69	요지부동(搖之不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지부동(搖흔들 요, 之갈 지, 아닐 부, 動움직일 동) : 흔들어도 꿈쩍하지 아니함. 	1회
70	유구무언(有口無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구무언(有있을 유, 口입 구, 無없을 무, 言말씀 언) :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함을 이르는 말. 	2회
71	유유상종(類類相從)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유상종(類무리 유, 類무리 유, 相서로 상, 從좃을 종) :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귀. 	2회
72	유일무이(唯一無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일무이(唯오직 유, 一한 일, 無없을 무, 二두 이) : 오직 하나뿐이고 둘도 없음. 	1회
73	이구동성(異口同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구동성(異다를 이, 口입 구, 同한가지 동, 聲소리 성) : 입은 다르나 목소리는 같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음을 이르는 말. 	1회
74	이란투석(以卵投石)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란투석(以씨 이, 卵알란, 投던질 투, 石돌 석) : 달걀로 돌을 친다는 뜻으로, 아주 약한 것으로 강한 것에 대항하려는 어리석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이란격석 	1회
75	이심전심(以心傳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심전심(以씨 이, 心마음 심, 傳전할 전, 心마음 심) :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2회
76	이열치열(以熱治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열치열(以씨 이, 熱더울 열, 治다스릴 치 熱더울 열) : 열은 열로써 다스림. 곧 열이 날 때에 땀을 낸다든지, 더위를 뜨거운 차를 마셔서 이긴다든지, 힘은 힘으로 물리친다는 따위를 이를 때에 흔히 쓰는 말. 	2회
77	이왕지사(已往之事)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왕지사(已이미 이, 往갈 왕, 之갈 지, 事일 사) : 이미 지나간 일. 	1회
78	일거양득(一舉兩得)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거양득(一한 일, 擧들 거, 兩두 양, 得얻을 득) :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 	1회
79	일벌백계(一罰百戒)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벌백계(一한 일, 罰벌할 벌, 百일백 백, 戒경계할 계) : 한 사람을 벌주어 백 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본보기로 한 사람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일을 이르는 말. 	1회
80	일진일퇴(一進一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진일퇴(一한 일, 進나아갈 진, 一한 일, 退물러날 퇴) : 한 번 앞으로 나아갔다 한 번 뒤로 물러섰다 함. 	4회



81	일편단심(一片丹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편단심(一한 일, 片조각 편, 丹붉을 단, 心마음 심) :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1회
82	자가당착(自家撞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당착(自스스로 자, 家집 가, 撞칠 당, 着붙을 착) :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 	1회
83	자격지심(自激之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지심(自스스로 자, 激격할 격, 之갈 지, 心마음 심) :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 	2회
84	자승자박(自繩自縛)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승자박(自스스로 자, 繩노끈 승, 自스스로 자, 縛엮을 박) 1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되어 괴로움을 당함 2 제 마음으로 번뇌를 일으켜 괴로움을 만듦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회
85	자중지란(自中之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중지란(自스스로 자, 中가운데 중, 之갈 지, 亂어지러울 란) : 같은 편끼리 하는 싸움. 	2회
86	자포자기(自暴自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포자기(自스스로 자, 暴사나올 포, 自스스로 자, 棄버릴 기) :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 	1회
87	적반하장(賊反荷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반하장(賊도둑 적, 反돌이킬 반, 荷꾸짖을 하, 杖지팡이 장) :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 	2회
88	전인미답(前人未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인미답(前앞 전, 人사람 인, 未아닐 미, 踏밟을 답) 1 이제까지 그 누구도 가 보지 못함. 2 이제까지 그 누구도 손을 대어 본 일이 없음. 	1회
89	전전공공(戰戰兢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전공공(戰싸움 전, 戰싸움 전, 兢떨릴 공, 兢떨릴 공) :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 	2회
90	전화위복(轉禍爲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위복(轉구를 전, 禍재앙 화, 爲할 위, 福복 복) : 재앙과 화난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4회
91	절차탁마(切磋琢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탁마(切끊을 절, 磋갈 차, 琢다듬을 탁, 磨갈 마) : 옥이나 돌 따위를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는 뜻으로,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닦음을 이르는 말. 	1회
92	절치부심(切齒腐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치부심(切끊을 절, 齒이 치, 腐썩을 부, 心마음 심) :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1회
93	점입가경(漸入佳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입가경(漸점점 점, 入들 입, 佳아름다운 가, 境지경 경) 1 들어갈수록 점점 재미가 있음. 2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물골이 더욱 꿀볼견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회
94	조변석개(朝變夕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변석개(朝아침 조, 變변할 변, 夕저녁 석, 改고칠 개) : 아침저녁으로 뜯어고친다는 뜻으로, 계획이나 결정 따위를 일관성이 없이 자주 고침을 이르는 말. 	2회
95	중구난방(衆口難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구난방(衆무리 중, 口입 구, 難어려울 난, 防막을 방) : 못사람의 말을 막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지껄임을 이르는 말. 	1회
96	지기지우(知己之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기지우(知알 지, 己몸 기, 之갈 지, 友벗 우) : 자기의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친구. 	1회
97	진퇴양난(進退兩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퇴양난(進나아갈 진, 退물러날 퇴, 兩두 양, 難어려울 난) :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 	4회
98	진퇴유곡(進退維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퇴유곡(進나아갈 진, 退물러날 퇴, 維버리 유, 谷골 곡) :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꼼짝할 수 없는 궁지. 	2회



99	천려일실(千慮一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려일실(千일천 려, 慮생각할 려, 一한 일, 失잃을 실) : 천 번 생각에 한 번 실수라는 뜻으로, 슬기로운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에는 잘못되는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이르는 말. 	1회
100	천양지차(天壤之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양지차(天하늘 천, 壤흙덩이 양, 之갈 지, 差다를 차) : 하늘과 땅 사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 	2회
101	천우신조(天佑神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우신조(天하늘 천, 佑도울 우, 神귀신 신, 助도울 조) : 하늘과 신령의 도움. 	1회
102	청천벽력(青天霹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천벽력(푸를 청, 天하늘 천, 霹벼락 벽, 靂벼락 력) : 맑게 갠 하늘에서 치는 날벼락이라는 뜻으로, 뜻밖에 일어난 큰 변고나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회
103	청출어람(青出於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출어람(푸를 청, 出날 출, 於어조사 어, 藍쪽 람) :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회
104	초록동색(草綠同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록동색(草풀 초, 綠푸를 록, 同한가지 동, 色빛 색) 1 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이라는 뜻으로, 처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한패가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명칭은 다르나 따져 보면 한가지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회
105	침소봉대(針小棒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소봉대(針바늘 침, 小작을 소, 棒막대 봉, 大클 대) :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 	3회
106	토사구팽(兔死狗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사구팽(兔토끼 토, 死죽을 사, 狗개 구, 烹살을 팽) :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에게 삶아 먹히게 된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 	1회
107	표리부동(表裏不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리부동(表겉 표, 裏속 리, 不아닐 부, 同한가지 동) : 마음이 음흉하고 불량하여 겉과 속이 다름. 	1회
108	풍수지탄(風樹之嘆)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수지탄(風바람 풍, 樹나무 수, 之갈 지, 嘆탄식할 탄) :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이를 여윈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 	1회
109	풍찬노숙(風餐露宿)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찬노숙(風바람 풍, 餐밥 찬, 露이슬 노, 宿잘 숙) : 바람을 먹고 이슬에 잠잔다는 뜻으로, 객지에서 많은 고생을 겪음을 이르는 말. 	1회
110	함구무언(緘口無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구무언(緘봉할 함, 口입 구, 無없을 무, 言말씀 언) :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함. 	2회
111	허장성세(虛張聲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장성세(虛빌 허, 張베풀 장, 聲소리 성, 勢형세 세) :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 	3회
112	혈혈단신(孑孓單身)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혈단신(子외로울 혈, 子외로울 혈, 單홀 단, 身몸 신) :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 	1회
113	호가호위(狐假虎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가호위(狐여우 호, 假거짓 가, 虎범 호, 威위엄 위) :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3회
114	호구지책(糊口之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구지책(糊풀칠할 호, 口입 구, 之갈 지, 策책 책) : 가난한 살림에서 그저 겨우 먹고살아 가는 방책 	1회
115	혼비백산(魂飛魄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비백산(魂넛 혼, 飛날 비, 魄넛 백, 散흩을 산) :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 	1회



116	환골탈태(換骨奪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골탈태(換바꿀 환, 骨뼈 골, 奪빼앗을 탈, 胎아이 벨 태) 1 뼈대를 바꾸어 끼고 태를 바꾸어 쓴다는 뜻으로, 고인의 시문의 형식을 바꾸어서 그 짜임새와 수법이 먼저 것보다 잘되게 함을 이르는 말. 2 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하여 전혀 딴사람처럼 됨. 	3회
117	후생가외(後生可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생가외(後뒤 후, 生날 생, 可옳을 가, 畏두려워할 외) : 젊은 후학들을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으로, 후진들이 선배들보다 젊고 기력(氣力)이 좋아, 학문(을 닦음)에 따라 큰 인물이 될 수 있으므로 가히 두렵다는 말 	1회
118	후안무치(厚顏無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안무치(厚두터울 후, 顏낯 안, 無없을 무, 恥부끄러울 치) :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음. 	1회
119	후회막급(後悔莫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회막급(後뒤 후, 悔뒤우칠 회, 莫없을 막, 及미칠 급) : 이미 잘못된 뒤에 아무리 후회하여도 다시 어찌할 수가 없음. 	1회

2011 수능 연계 EBS 교재의 관용어구를 썩 다 모아서!

수능 기출

1	각고면려(刻苦勉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고면려(刻새길 각, 苦쓸 고, 勉힘쓸 면, 勵힘쓸 려) : 어떤 일에 고생을 무릅쓰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무척 애를 쓰면서 부지런히 노력함. 	1회
2	각골통한(刻骨痛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골통한(刻새길 각, 骨뼈 골, 痛아플 통, 恨한할 한) : 뼈에 사무치게 맞힌 원한. = 각골지통(刻骨之痛). 	2회
3	각주구검(刻舟求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주구검(刻새길 각, 舟배 주, 求구할 구, 劍칼 검) : 배에서 칼을 떨어뜨리고 뱃전에 빠뜨린 자리를 표시해 두었다가 배가 정박한 뒤에 칼을 찾으려 했다는 고사(故事)에서, 미련하고 융통성이 없음의 비유. 	2회
4	간담상조(肝膽相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담상조(肝간 간, 膽쓸개 담, 相서로 상, 照비출 조) :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친하게 사귀. 	3회
5	감탄고토(甘呑苦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탄고토(甘달 감, 呑삼킬 탄, 苦쓸 고, 吐토할 토)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제 비위에 맞으면 좋아하고 맞지 않으면 싫어한다는 말. 	2회
6	강구연월(康衢煙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구연월(康편안할 강, 衢네거리 구, 煙연기 연, 月달 월) 1 태평한 시대의 큰 길거리의 평화로운 풍경. 2 태평한 세월. 	1회
7	격세지감(隔世之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세지감(隔사이플 격, 世대 세, 之갈 지, 感느낄 감) : 다른 세대를 만난 것처럼 몹시 달라진 느낌. 격세감. 	1회
8	견강부회(牽強附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강부회(牽이끌 견, 強강할 강, 附붙을 부, 會모일 회) :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 	2회
9	견리사의(見利思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리사의(見볼 견, 利날카로울 리, 思생각 사, 義옳을 의) : 눈앞에 이익이 보일 때, 의리를 생각함. 	2회
10	괄목상대(刮目相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괄목상대(刮깎을 괄, 目눈 목, 相서로 상, 對대답할 대) :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본다는 뜻으로,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는 것을 일컬음. 	1회
11	광음여류(光陰如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음여류(光빛 광, 陰음달 음, 如같을 여, 流흐를 류) : 세월이 가는 것이 물의 흐름처럼 빠름. 	1회



12	교언영색(巧言令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언영색(巧공교할 교, 言말씀 언, 令하여금 영, 色빛 색) :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묘히 꾸며서 하는 말과 아첨하는 얼굴빛	2회
13	구밀복검(口蜜腹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밀복검(口입 구, 蜜꿀 밀, 腹배 복, 劍칼 검) :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체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을 가짐을 이르는 말. 	1회
14	군웅할거(群雄割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웅할거(群무리 군, 雄수컷 웅, 割나눌 할, 據의거할 거) : 많은 영웅들이 서로 한 지방씩을 차지하여 세력을 다툼.	1회
15	권불십년(權不十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불십년(權저울추 권, 不아닐 불, 十열 십, 年해 년) : 권세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	1회
16	권토중래(捲土重來)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토중래(捲말 권, 土흙 토, 重무거운 중, 來올 래) 1 한 번 패했다가 세력을 회복해서 다시 쳐들어옴. 2 한 번 실패한 일을 의욕적으로 다시 함.	1회
17	근묵자흑(近墨者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묵자흑(近가까울 근, 墨먹 묵, 者놈 자, 黑검을 흑) : 먹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회
18	금란지교(金蘭之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란지교(金쇠 금, 蘭난초 란, 之관 지, 交사귄 교) : 극히 친한 사이. 	1회
19	금상첨화(錦上添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상첨화(錦비단 금, 上위 상, 添더할 첨, 花꽃 화) :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더함. 	1회
20	금의환향(錦衣還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의환향(錦비단 금, 衣옷 의, 還돌아올 환, 鄉시골 향) : 출세를 하고 고향에 돌아옴. 	1회
21	기고만장(氣高萬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고만장(氣기운 기, 高높을 고, 萬일만 만, 丈어른 장) 1 필필 뿔 만큼 대단히 성이 남. 2 일이 뜻대로 잘될 때, 우쭐하여 뽐내는 기세가 대단함.	1회
22	내우외환(內憂外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우외환(內안 내, 憂근심할 우, 外밖 외, 患근심 환) : 내우와 외환. 나라 안팎의 근심 걱정.	1회
23	노심초사(勞心焦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심초사(勞일할 노, 心마음 심, 焦탈 초, 思생각 사) :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1회
24	당랑거철(螳螂拒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랑거철(螳사마귀 당, 螂사마귀 랑, 拒막을 거, 轍바퀴자국 철) : 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나 되지 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제나라 장공(莊公)이 사냥을 나가는 데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를 멈추려 했다는 데서 유래한다.	1회
25	대경失色(大驚失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경失色(大큰 대, 驚놀랄 경, 失잃을 실, 色빛 색) : 크게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변함.	1회
26	동병상련(同病相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병상련(同한가지 동, 病병 병, 相서로 상, 憐불쌍히 여길 려) :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	1회
27	동상이몽(同床異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상이몽(同한가지 동, 床평상 상, 異다를 이, 夢꿈 몽) :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는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판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	2회
28	막무가내(莫無可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무가내(莫없을 막, 無없을 무, 可옴을 가, 奈어찌 내) : 도무지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어 어찌할 수 없음	1회
29	만사휴의(萬事休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사휴의(萬일만 만, 事일 사, 休될 휴, 矣어조사 의) : ‘더 손쓸 수단도 없고 모든 것이 끝장났다.’ ‘모든 일이 전혀 가망 없다’의 뜻. 	1회



30	만시지탄(晩時之歎)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시지탄(晩서물 만, 時때 시, 之갈 지, 歎을 탄) <p>: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한탄.</p>	1회
31	망연자실(茫然自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망연자실(茫아득할 망, 然그러할 연, 自스스로 자, 失잃을 실) <p>: 정신을 잃고 어리둥절함.</p>	1회
32	망운지정(望雲之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망운지정(望바랄 망, 雲구름 운, 之갈 지, 情뜻 정) <p>: 구름을 바라보며 그리워한다는 뜻으로, ① 타향에서 고향에 계신 부모를 생각함 ② 멀리 떠난 자식이 아버지를 사모하여 그리는 정</p>	1회
33	멸사봉공(滅私奉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멸사봉공(滅멸말할 멸, 私사사 사, 奉받들 봉, 公공변될 공) <p>: 사를 버리고 공을 위하여 힘써 일함.</p>	1회
34	명재경각(命在頃刻)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재경각(命목숨 명, 在있을 재, 頃받 들이 단위 경, 刻새길 각) <p>: 금방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름. 거의 죽게 됨.</p>	3회
35	목불인견(目不忍見)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불인견(目눈 목, 不아닐 불, 忍참을 인, 見볼 견) <p>: 눈앞에 벌어진 상황 따위를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음</p>	1회
36	무위자연(無爲自然)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위자연(無없을 무, 爲할 위, 自스스로 자, 然그러할 연) <p>1 자연에 맡겨 덧없는 행동은 하지 않음. 2 사람의 힘을 들이지 않은 그대로의 자연.</p>	1회
37	물아일체(物我一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아일체(物만물 물, 我나 아, 一한 일, 體몸 체) <p>: 외물(外物)과 자아(自我) 또는 객관과 주관이 하나가 됨. 또는 그런 경지.</p>	1회
38	반신반의(半信半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신반의(半반 반, 信믿을 신, 半반 반, 疑의심할 의) <p>: 얼마쯤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함.</p>	1회
39	방약무인(傍若無人)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약무인(傍곁 방, 若같을 약, 無없을 무, 人사람 인) <p>: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음.</p>	1회
40	백가쟁명(百家爭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가쟁명(百일백 백, 家집 가, 爭다를 쟁, 鳴울 명) <p>: 많은 학자나 문화인 등이 자기의 학설이나 주장을 자유롭게 발표하여, 논쟁하고 토론하는 일.</p>	1회
41	백골난망(白骨難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골난망(白흰 백, 骨뼈 골, 難어려울 난, 忘잊을 망) <p>: 죽어도 잊지 못할 큰 은혜를 입음이란 뜻으로, 남에게 큰 은혜나 덕을 입었을 때 고마움을 표시하는 말</p>	1회
42	백년하청(百年河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년하청(百일백 백, 年해 년, 河강이름 하, 淸맑을 청) <p>: 중국의 황허(黃河)가 항상 흐리어 맑을 때가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기다려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뜻.</p>	3회
43	백아절현(伯牙絕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아절현(伯만 백, 牙어금니 아, 絶끊을 절, 絃악기 줄 현) <p>: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함. 중국 춘추 시대에 백아(伯牙)는 거문고를 매우 잘 탔고 그의 벗 종자기(鍾子期)는 그 거문고 소리를 잘 들었는데, 종자기가 죽어 그 거문고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게 되자 백아가 절망하여 거문고 줄을 끊어 버리고 다시는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는 데서 유래한다.</p>	1회
44	백척간두(百尺竿頭) / 백척간두(百尺竿頭) 진일보(進一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척간두(百일백 백, 尺자 척, 竿뉘싯대간, 頭머리두) <p>: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척간두진일보(百일백 백, 尺자 척, 竿뉘싯대간, 頭머리두, 進나아갈 진, 一한 일, 步걸음 보) <p>: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다달아 또 한걸음 더 나아간다는 뜻으로, 이미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것인 데 또 한 걸음 나아간다 함은 더욱 노력(努力)하여 위로 향한다는 말</p>	3회
45	부화뇌동(附和雷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화뇌동(附붙을 부, 和화할 화, 雷우레 뇌, 同한가지 동) <p>: 좃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p>	1회



46	분기탱천(憤氣撐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탱천(憤결넌 분, 氣기운 기, 撐버틸 탕, 天하늘 천) : 분한 기운이 하늘을 찌를 듯이 북받쳐 오름. 분기충천.	2회
47	비일비재(非一非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일비재(非아닐 비, 一한 일, 非아닐 비, 再두 재) 1 한두 번이 아니고 많음. 2 한둘이 아님. 수두룩함.	1회
48	사고무친(四顧無親)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무친(四넉 사, 顧돌아볼 고, 無없을 무, 親친할 친) : 의지할 데가 도무지 없음. 	2회
49	사면초가(四面楚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면초가(四넉 사, 面낫 면, 楚초나라 초, 歌노래 가) :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 	1회
50	서절구투(鼠竊狗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절구투(鼠쥐 서, 竊훔칠 절, 狗개 구, 偷훔칠 투) : 쥐나 개처럼 몰래 물건을 훔친다는 뜻으로, '좀도둑'을 이르는 말.	1회
51	상전벽해(桑田碧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전벽해(桑뽕나무 상, 田밭 전, 碧푸를 벽, 海바다 해) :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회
52	선풍도골(仙風道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풍도골(仙신선 선, 風바람 풍, 道길 도, 骨뼈 골) : 신선의 풍채와 도인의 골격이란 뜻으로, 뛰어난 고아한 풍채를 이르는 말. 	1회
53	설왕설래(說往說來)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왕설래(說말씀 설, 往갈 왕, 說말씀 설, 來올 래) : 서로 변론을 주고받으며 옥신각신함. 또는 말이 오고 감.	2회
54	섬섬옥수(纖纖玉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섬옥수(纖가늘 섬, 纖가늘 섬, 玉옥 옥, 手손 수) : 가냘프고 고운 여자의 손. 	1회
55	소탐대실(小貪大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탐대실(小작을 소, 貪탐할 탐, 大큰 대, 失잃을 실) :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음.	1회
56	수구초심(首丘初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구초심(首머리 수, 丘언덕 구, 初처음 초, 心마음 심) : 여우는 죽을 때 구릉을 향해 머리를 두고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① 근본을 잊지 않음 ② 또는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하는 마음	3회
57	수주대토(守株待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주대토(守지킬 수, 株그루 주, 待기다릴 대, 兔토끼 토) : [중국 송(宋)나라의 한 농부가 토끼가 나무그루에 부딪쳐 죽은 것을 잡은 후, 농사는 팽개치고 나무그루만 지키고 토끼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고사에서] 한 가지 일에만 얽매어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한 말.	2회
58	순망치한(唇亡齒寒)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망치한(唇입술 순, 亡말할 망, 齒이 치, 寒쌀 한) :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가까운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온전하기 어려움의 비유. 	1회
59	십장홍진(十丈紅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십장홍진(十열 십, 丈어른 장, 紅붉을 홍, 塵티끌 진) : 열 길이나 되는 붉은 먼지, 어수선한 속세	1회
60	안하무인(眼下無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하무인(眼눈 안, 下아래 하, 無없을 무, 人사람 인) :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 비슷한 말 :안중무인.	1회
61	암중모색(暗中摸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중모색(暗어두울 암, 中가운데 중, 摸터듬을 막, 索찾을 색) 1 물건 따위를 어둠 속에서 더듬어 찾음. 2 어렵으로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아내려 함. 비슷한 말. 3 은밀한 가운데 일의 실마리나 해결책을 찾아내려 함.	1회
62	여필종부(女必從夫)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필종부(女여자 여, 必반드시 필, 從좃을 종, 夫지아비 부) : 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말.	1회
63	연목구어(緣木求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목구어(緣가선 연, 木나무 목, 求구할 구, 魚고기 어) :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듯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함.	3회



64	오리무중(五里霧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리무중(五다섯 오, 리마을 리, 霧안개 무, 中가운데 중) : 오 리나 되는 길은 안개 속에 있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 	1회
65	온고지신(溫故知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고지신(溫따뜻할 온, 故연고 고, 知알 지, 新새 신) :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 	3회
66	와신상담(臥薪嘗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와신상담(臥엎드릴 와, 薪薪나무 신, 嘗맛볼 상, 膽쓸개 담) : 쉼에 누워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마음먹은 일을 이루려고 괴롭고 어려움을 참고 견딤. 	1회
67	위풍당당(威風堂堂)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풍당당(威위엄 위, 風바람 풍, 堂堂 당, 堂堂 당) : 풍채가 위엄이 있고 씩씩함. 	1회
68	유방백세(流芳百世)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방백세(流흐를 유, 芳꽃다울 방, 百일백 백, 世대 세) : 꽃다운 이름이 후세에 길이 전함. 	1회
69	이심전심(以心傳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심전심(以써 이, 心마음 심, 傳전할 전, 心마음 심) :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이 통함. 	4회
70	이열치열(以熱治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열치열(以써 이, 熱더울 열, 治다스릴 치, 熱더울 열) : 열은 열로써 다스림. 곧 열이 날 때에 땀을 낸다든지, 더위를 뜨거운 차를 마셔서 이긴다든지, 힘은 힘으로 물리친다는 따위를 이룰 때에 흔히 쓰는 말이다. 	1회
71	일거양득(一舉兩得)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거양득(一한 일, 擧들 거, 兩두 양, 得얻을 득) :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 	1회
72	일벌백계(一罰百戒)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벌백계(一한 일, 罰벌할 벌, 百일백 백, 戒경계할 계) : 한 사람을 벌주어 백 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본보기로 한 사람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일을 이르는 말. 	1회
73	일신우일신 (日新又日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신우일신(日날 일, 新새 신, 又또 우, 日날 일, 新새 신) : 나날이 새로워짐. 	1회
74	일체유심(一切唯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체유심(一한 일, 切은통 체, 唯오직 유, 心마음 심) :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임 	1회
75	일편단심(一片丹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편단심(一한 일, 片조각 편, 丹붉을 단, 心마음 심) : 한 조각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않는 마음을 이르는 말. 	1회
76	임기응변(臨機應變)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기응변(臨임할 임, 機틀 기, 應응할 응, 變변할 변) : 그때그때 처한 형편에 맞추어 일을 알맞게 처리함. 	2회
77	자승자박(自繩自縛)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승자박(自스스로 자, 繩줄 승, 自스스로 자, 縛묶을 박) :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되어 괴로움을 당함 	2회
78	자유자재(自由自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자재(自스스로 자, 由말미암을 유, 自스스로 자, 在있을 재) : 어떤 범위 내에서 구속·제한됨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음. 	1회
79	자중지란(自中之亂)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중지란(自스스로 자, 中가운데 중, 之갈 지, 亂어지러울 란) : 같은 편끼리 하는 싸움. 	1회
80	자초지종(自初至終)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초지종(自스스로 자, 初처음 초, 至이를 지, 終끝날 종) : 처음부터 끝까지 이르는 동안, 또는 그 사실. 	2회
81	자포자기(自暴自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포자기(自스스로 자, 暴사나올 포, 自스스로 자, 棄버릴 기) :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 	1회
82	장삼이사(張三李四)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삼이사(張베풀 장, 三셋 삼, 李오얏 리, 四넉 사) : 성명이나 신분이 뚜렷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 	1회
83	재자가인(才子佳人)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자가인(才계주 재, 子아들 자, 佳아름다울 가, 人사람 인) : 재주 있는 젊은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 	1회



84	전전공공(戰戰兢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전공공(戰싸울 전, 戰싸울 전, 兢兢삼갈 공, 兢兢삼갈 공) : 몹시 두려워 별별 떨며 조심함. 	1회
85	절차탁마(切磋琢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탁마(切끊을 절, 磋갈 차, 琢다듬을 탁, 磨갈 마) : 옥이나 돌 따위를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는 뜻으로,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닦음을 이르는 말. 	2회
86	절치부심(切齒腐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치부심(切끊을 절, 齒이 치, 腐썩을 부, 心마음 심) :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3회
87	조변석개(朝變夕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변석개(朝아침 조, 變변할 변, 夕저녁 석, 改고칠 개) : 아침저녁으로 뜯어고친다는 뜻으로, 계획이나 결정 따위를 일관성이 없이 자주 고침을 이르는 말. 	1회
88	조삼모사(朝三暮四)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삼모사(朝아침 조, 三셋 삼, 暮저녁 모, 四네 사) :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르는 말. 	2회
89	좌고우면(左顧右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고우면(左왼 좌, 顧돌아볼 고, 右원 우, 盼애꾸는 면) : 이쪽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앞뒤를 재고 망설임의 일컬음. 좌우고면(顧盼). 	1회
90	좌불안석(坐不安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불안석(坐앉을 좌, 不安닐 불, 安편안할 안, 席자리 석) : 불안·근심 등으로 한군데에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함. 	2회
91	좌정관천(坐井觀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정관천(坐앉을 좌, 井우물 정, 觀볼 관, 天하늘 천) : 견문이 썩 좁음을 이르는 말 《우물 안 개구리의 뜻》. 	2회
92	주객전도(主客顛倒)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객전도(主주인 주, 客손객, 顛복대기 전, 倒넘어질 도) : 주인과 객의 위치가 서로 뒤바뀐다는 뜻으로, 사물의 경중·선후·완급이 서로 뒤바뀜. 	1회
93	죽마고우(竹馬故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마고우(竹대나무 죽, 馬말 마, 故옛 고, 友벗 우) : 대말을 타고 놀던 벗이라는 뜻으로,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며 친하게 지내 온 벗. 죽마구우(舊友). 	1회
94	지기지우(知己之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기지우(지알 지, 己몸 기, 之갈 지, 友벗 우) : 자기의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친구. 	1회
95	지록위마(指鹿爲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록위마(指손가락 지, 鹿사슴 록, 爲할 위, 馬말 마) 1. 위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을 가리키는 말. 2. 모순된 것을 우겨서 남을 속이려는 것의 비유. 	2회
96	지이부지(知而不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이부지(지알 지, 而말 이을 이, 不知닐 불, 知알이지) : 알고도 모르는 체함. 지사부지(知事不知). 	2회
97	진퇴양난(進退兩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퇴양난(進아갈 진, 退물러날 퇴, 兩두 양, 難어려울 난) :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 	1회
98	진퇴유곡(進退維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퇴유곡(進아갈진, 退물러날 퇴, 維버리유, 谷골곡) :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꼼짝할 수 없는 궁지. 	1회
99	천려일실(千慮一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려일실(千일천 천, 慮생각할 려, 一한 일, 失잃을 실) : 천 번 생각에 한 번 실수라는 뜻으로, 슬기로운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에는 잘못되는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이르는 말. 	1회
100	천방지축(天方地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방지축(天하늘 천, 方모 방, 地땅 지, 軸글래 축) 1. 못난 사람이 종작없이 덩벙이는 일. 2. 너무 급하여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함부로 날뛰는 일. 	1회
101	천생연분(天生緣分)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생연분(天하늘 천, 生날 생, 緣가선 연, 分나눌 분) : 하늘에서 정해 준 연분. 천생인연. 	1회
102	천우신조(天佑神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우신조(天하늘 천, 佑도울 우, 神귀신 신, 助도울 조) : 하늘과 신령의 도움. 	2회



103	천의무봉(天衣無縫)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의무봉(天 하늘 천, 衣 옷 의, 無없을 무, 縫베낼 봉) 1 하늘의 직녀가 짜 입은 옷은 술기가 없다는 뜻으로, 시문(詩文) 등이 매우 자연스러워 조금도 꾸민 데가 없음을 이룸. 2 완전무결해 흠이 없음을 이룸. 	1회
104	청산유수(靑山流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산유수(靑푸를 청, 山되 산, 流흐를 유, 水물 수) : 막힘없이 말을 잘하거나 그렇게 하는 말의 비유. 	1회
105	청천벽력(靑天霹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천벽력(靑푸를 청, 天 하늘 천, 霹벼락 벽, 靂벼락 력) : 맑게 갠 하늘에서 치는 날벼락이라는 뜻으로, 뜻밖에 일어난 큰 변고나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회
106	촌철살인(寸鐵殺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촌철살인(寸마디 촌, 鐵쇠 철, 殺죽일 살, 人사람 인) : 한 치의 쇠붙이로도 살인한다는 뜻으로, 간단한 경구(警句)로도 남을 감동시키거나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다는 비유의 말. 	1회
107	추풍낙엽(秋風落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풍낙엽(秋가을 추, 風바람 풍, 落떨어질 낙, 葉잎 엽) 1 가을바람에 흩어져 떨어지는 낙엽. 2 세력 등이 낙엽처럼 시들어 우수수 떨어짐의 비유. 	1회
108	칠종칠금(七縱七擒)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종칠금(七일곱 칠, 縱늘어질 종, 七일곱 칠, 擒사로잡을 금) : 일곱 번 놓아 주고 일곱 번 사로잡는다는 뜻으로, 마음대로 잡았다 놓아 주었다 함의 비유. 	1회
109	침소봉대(針小棒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소봉대(針바늘 침, 小작을 소, 棒막대 봉, 大클 대) :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 	1회
110	타산지석(他山之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산지석(他남 타, 山되 산, 之갈 지, 石돌 석) :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산의 옥돌을 가는 데에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본이 되지 않은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회
111	토사구팽(兔死狗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사구팽(兔토끼 토, 死죽을 사, 狗개 구, 烹삶을 팽) :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에게 삶아 먹히게 된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 	1회
112	표리부동(表裏不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리부동(表겉표, 裏속리, 不아닐 부, 同한가지 동) : 마음이 음흉하고 불량하여 겉과 속이 다름. 	3회
113	풍수지탄(風樹之嘆)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수지탄(風바람 풍, 樹나무 수, 之갈 지, 嘆탄식할 탄) :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이를 여윈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 	4회
114	하석상대(下石上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석상대(下아래 하, 石돌 석, 上위 상, 臺돈대 대) :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꺾는다는 뜻으로,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춤을 이르는 말. 	2회
115	행이불언(行而不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이불언(行행할 행, 而말어울이, 不아닐 불, 言말씀언) : 말없이 행동으로 실천함 이 	1회
116	허장성세(虛張聲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장성세(虛빌 허, 張베풀 장, 聲소리 성, 勢형세 세) :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 	1회
117	헐헐단신(子子單身)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헐헐단신(子외로울 헐, 子외로울 헐, 單홀 단, 身몸 신) :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 	2회
118	호가호위(狐假虎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가호위(狐여우 호, 假거짓 가, 虎범 호, 威위엄 위) :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1회
119	혼비백산(魂飛魄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비백산(魂넋 혼, 飛날 비, 魄넋 백, 散흩을 산) :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 	4회



120	화룡점정(畫龍點睛)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룡점정(畫그림 화, 龍용 룡, 點점 점, 睛눈동자 정) : 용을 그릴 때 마지막에 눈을 그려 완성시킨다는 뜻에서, 가장 긴한 부분을 완성시킴. 	1회
121	후회막급(後悔莫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회막급(後뒤 후, 悔뒤우칠 회, 莫없을 막, 及미칠 급) : 이미 잘못된 뒤에 아무리 후회하여도 다시 어찌할 수가 없음.	1회
122	흥진비래(興盡悲來)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진비래(興일 흥, 盡다할 진, 悲슬플 비, 來올 래) :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으로, 세상일이 돌고 돌아 순환됨을 가리키는 말. 	1회
123	희로애락(喜怒哀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로애락(喜기쁠 희, 怒성낼 노, 哀슬플 애, 樂즐거울 락) : 기쁨과 노염과 슬픔과 즐거움.	1회

1	가슴을 치다	마음에 큰 충격을 받다.	1회
2	갈수록 태산이다	갈수록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산 넘어 산이다 산은 오를수록 높고 물은 건널수록 깊다 재는 넘을수록 험하고[높고] 내는 건널수록 깊다.	1회
3	개발에 주석 편자	옷차림이나 지닌 물건 따위가 체격에 맞지 아니하여 어울리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개 귀에 방울 개 대가리에 관[옥관자] 개 목에 방울(이라) 개 발에 (놋)대갈[버선/토시짖] 개에(게) 호패.	1회
4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군	강한 자들끼리 싸우는 통에 아무 상관도 없는 약한 자가 중간에 끼어 피해를 입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회
5	과일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	지지리 못난 사람일수록 같이 있는 동료들 망신시킨다는 말. ≍ 어물진 망신은 꿀뚜기가 시킨다. 과물진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 과일 망신은 모과가 (다) 시킨다. 생선 망신은 꿀뚜기가 시킨다.	1회
6	궤다 놓은 보릿자루	1 여럿이 모여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옆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전당 잡은 촛대 (같고 꾸어 온 보릿자루 같다). 2 『북』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회
7	꿩 잡는 매다	1 꿩을 잡아야 매라고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방법이 어떻든 간에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실제로 제 구실을 하여야 명실상부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회
8	끈 떨어진 뒤옹박	1 의지할 데가 없어 꼼짝을 못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광대 끈 떨어졌다 2 『북』 쓸모없게 된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회



9	눈 가리고 아웅한다	1 얽은수로 남을 속이려 한다는 말. ≙ 가랑이으로 눈(을) 가리고 아웅 한다. 눈 벌리고 어비야 한다. 머리카락 뒤에서 숨바꼭질한다. 2 실제로 보람도 없을 일을 공연히 형식적으로 하는 체하며 부질없는 짓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귀 막고 아웅 한다. 눈 감고 아웅 한다. 눈 벌리고 아웅.	1회
10	달면 삼키고 쓰면 뺀다	옳고 그름이나 신의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꾀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맛이 좋으면 넘기고 쓰면 뺀다 쓰면 뺀고 달면 삼킨다 추우면 다가들고 더우면 물러선다.	1회
11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군	개에게 쫓기던 닭이 지붕으로 올라가자 개가 쫓아 올라가지 못하고 지붕만 쳐다본다는 뜻으로, 애써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남보다 뒤떨어져 어찌할 도리가 없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회
12	당장 먹기에는 꽃감이 달다	1 당장 먹기 좋고 편한 것은 그때 잠시뿐이지 정작 좋고 이로운 것은 못 된다는 말. 2 나중에 가서야 어떻게 되든지 당장 하기 쉽고 마음에 드는 일을 잡고 시작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회
13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 격이군	잘못한 놈이 도리어 기세를 올리고 나무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도둑놈이 몽둥이 들고 길 위에 오른다 도둑이 달릴까 했더니 우뚝 선다.	1회
14	돈방석에 앉다	썩 많은 돈을 가져 안락한 처지가 되다.	1회
15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사람의 욕심이란 한이 없다는 말. ≙ 말 타면 종 두고 싶다.	2회
16	머리가 굳다	1 사고방식이나 사상 따위가 완고하다. 2 기억력 따위가 무디다.	1회
17	명함도 못 들이다	수준이나 정도 차이가 심하여 도저히 견줄 바가 못 되다.	1회
18	무릎을 꿇다	항복하거나 굴복하다	1회
19	발 디딜 틈이 없다	복작거리어 혼잡스럽다.	1회
20	밥숟가락을 놓다	(속되게) 목숨이 끊어지다 ≙ 밥술(을) 놓다.	1회
21	번지수를 잘못 짚다	생각을 잘못 짚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다.	1회
22	보따리를 풀다	1 숨은 사실을 폭로하다. 2 계획했던 일을 실제로 하기 시작하다.	1회
23	비단옷을 입고 밤길 걷는다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걸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생색이 나지 않는 공연한 일에 애쓰고도 보람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회



24	빈 수레가 요란하다	실속 없는 사람이 겉으로 더 떠들어 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속이 빈 깡통이 소리만 요란하다.	1회
25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작은 일 때문에 큰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 = 교각살우(矯바로잡을 교, 角뿔 각, 殺죽일 교, 牛소우) : 소의 뿔 모양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작은 흠이나 결점을 고치려다가 도리어 일을 그르치는 것. = 소탐대실(小작을 소, 貪탐할 탐, 大큰 대, 失잃을 실) :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음.	2회
26	삼밭에 쭈대	쭈이 삼밭에 섞여 자라면 삼대처럼 곧아진다는 뜻으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좋은 영향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회
27	색안경을 끼고 보다	주관이나 선입견에 얽매어 좋지 아니하게 보다.	1회
28	서 발 막대 거칠 것 없다	1 서 발이나 되는 긴 막대를 휘둘러도 아무것도 거치거나 걸릴 것이 없다는 뜻으로, 가난한 집안이라 세간이 아무것도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횡한 빈 집에서 서 발 막대 거칠 것 없다. 2 주위에 조심스러운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거리킬 것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회
29	섞을 지고 불로 들어간다	당장에 불이 불을 섞을 지고 이글거리는 불 속으로 뛰어 든다는 뜻으로, 앞뒤 가리지 못하고 미련하게 행동함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1회
30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떠난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 = 말 잃고 외양간 고친다. 도둑맞고 사립[빈지] 고친다.	1회
31	손을 뻗치다	1 이제까지 하지 아니하던 일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다. 2 적극적인 도움, 요구, 침략, 간섭 따위의 행위가 멀리까지 미치게 하다.	1회
32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어떤 나무꾼이 신선들이 바둑 두는 것을 정신없이 보다가 제정신이 들어보니 세월이 흘러 도끼자루가 다 썩었다는 데서, 아주 재미있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1회
33	아랫돌 빼서 윗돌 꺾다	일이 몹시 급하여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추어 일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윗돌 빼서 아랫돌 꺾고 아랫돌 빼서 윗돌 꺾기	1회
34	약방에 감초이다	한약에 감초를 넣는 경우가 많아 한약방에 감초가 반드시 있다는 데서, 어떤 일이나 빠짐없이 끼어드는 사람 또는 꼭 있어야 할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건재 약국에 백복령.	1회



35	양의 털을 쓴 늑대다	흉악한 본성을 숨기기 위하여 겉으로 순하고 착한 것처럼 꾸미다.	1회
36	언 발에 오줌 누다	언 발을 녹이려고 오줌을 누어 봤자 효력이 별로 없다는 뜻으로,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회
37	오지랖이 넓다	1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 일이나 참견하는 면이 있다. 2 염치없이 행동하는 면이 있다.	1회
38	우물 안 개구리다	1 넓은 세상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견식이 좁아 저만 잘난 줄로 아는 사람을 비꼬는 말.	1회
39	우물에 가 송능 찾는다	모든 일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는 법인데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빔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보리밭에 가 송능 찾는다. 싸전에 가서 밥 달라고 한다.	1회
40	제 오라를 제가 졌다	1 자기가 한 일이 도리어 자기에게 해가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제 도끼에 제 발등 찍힌다. 2 무슨 못된 짓을 하다가 그 일로 자기 신세를 망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회
41	주머니에 들어간 송곳이라	선하거나 악한 일은 숨겨지지 아니하고 자연히 드러남을 이르는 말.	1회
42	평안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더니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당사자의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억지로 시킬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돈피에 잣죽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1회
43	포수 집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큰 세력을 등에 업고 주제넘게 행동함을 비꼬는 말.	1회
44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변명할 구실은 있음.	1회
45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회
46	하품에 딸꾸질	1 어려운 일이 공교롭게 계속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고비에 인삼 눈 위에 서리 친다. 마디에 용이 / 용이에 마디 얼어 죽고 데어 죽는다. 하품에 딸꾸질 / 하품에 폐기 2 얼마다 공교롭게도 방해가 끼어 낭패를 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회
47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1 적은 힘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에 쓸데없이 많은 힘을 들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커지기 전에 처리하였으면 쉽게 해결되었을 일을 방치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회